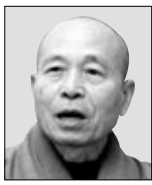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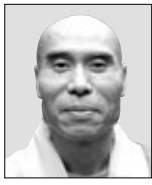
일 주 문



〈대승기신론〉고운사 특강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2월 17~21일 고운사 선체협관에서 '대승기신론' 특강을 진행한다. (054)833-2324



‘작심 4일’ 템플스테이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맞이 ‘작심 4일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고양 시민안전 기원법회 고양시불교사우미연합회 회장 대오 스님은 1월 23일 고양경찰서 4층 교양마루에서 시민안전 기원 신년법회를 진행했다.



대구 범양사 백고좌대설법회 대구 범양사 주지 실상 스님은 4월 25일까지 100일간 제26회 백고좌대설법회를 진행한다. (053)766-3747



겨울철건강음식 특강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2월 9일 진관사에서 겨울철건강음식배우기 1일 특강을 실시한다. (02)359-8410



대한불교진흥원 화요 열린강좌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진흥원 다보법당에서 2월 18일 고미술 고전평론가 초청 ‘동의보감, 몸과 우주’ 화요 열린강좌를 개최한다.

〈이전〉 도서출판 올리브그린

도서출판 올리브그린(대표 오종욱)은 사무실을 이전했다.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2길 49-4(운니동) 동원빌딩 4층 401호 (070)7574-8991. olivegreen_p@naver.com

〈동국대 인사〉

승진 △남산학사 관장 신기훈 △전략기획본부 전략예산팀장 방중혁 △만해마을캠퍼스교육원 학사운영실장 이경식 △공과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 행정지원팀장 김광희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윤주영

전보 △사업개발본부 건설관리팀장 김중기 △운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장 겸 연구진흥본부 회계팀장 박만규 △운영지원본부 구매팀장 정경섭 △문과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불교학술원 행정지원실장 김성근 △법무대학원 ·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장 이성진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사운영실장 조경진 △교육대학원 ·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장 김진환 △약학대학 학사운영실장 겸 바이오메디칼캠퍼스 운영지원팀장 신하균 △인문정보대학원 · 국제정보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윤동규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 주현석 △학사지원본부 교원인사기획팀장 강형석 △연구진흥본부 연구관리팀장 김태식 △교양교육원 교양교육팀장 김영훈

“종파 넘어서 지역포교 앞장설 것”

영천불교총연합회 회장 태관 스님

“불심 경남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이제는 이곳에도 포교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영천 거주자 주지 태관 스님은 최근 영천 불교총연합회(이하 영불련) 초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지난 1월 10일 은혜사 도선당에서 창립법회 후 정식 발족하게 된 영불련은 종파를 넘어서 지역 전법활동을 확대하고자 만들어진 불교 범연대 조직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 같은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천사우미연합회가 지역포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기준에 있었던 영천사우미연합회는 조계종 사찰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적 조직이었습니다. 협소한 지역에서 비슷한 행사를 거듭 반복하다 보니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초종파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해 영불련이 발족되었습니다.”

영천 지역에 등록된 사찰은 174개. 태관 스님은 그 중 70 개의 사찰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단체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해 줄 것을 설득했다.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진각종, 미륵종 등 다른 종단과는 교류가 없던 터



태고종·법화종 등 70개 사찰 연대 지역 밀착형 불교로 입지 강화 기치 불교 콘텐츠 확대, 문화축제 개최

라 내심 걱정도 했지만 흔쾌히 타종단 스님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스님은 은혜사, 용화사 등이 참여한 영불련을 통해 지역 내 불교 입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불교관련행사의 콘텐츠를 폭넓고 풍부하게 가꾸어 문화축제로 확장해갈은 물론 지역 이슈사항에도 적극 목소

리를 내며 지역밀착형 포교를 해나갈 방침이다. 사찰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장학활동이나 봉사활동 등도 불교라는 브랜드를 입혀 시행하며 지역민들을 보듬을 계획이다.

태관 스님은 “경상도 지역이 신심있는 곳이지만 하지만 영천시만 보더라도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회는 전멸했다 보아도 무방하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불교를 발전시켜서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영불련 발족을 계기로 영천 지역 내 불교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님은 “팔공산과 은혜사 지역에 테마파크와 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이 타종교에 의해 저지된 적이 있는 만큼 불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공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

연간 2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한 영불련은 실무직책을 다양한 종단의 스님들로 구성했다. 군소종단 스님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는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논의 주제로 오른다.

배현진 기자

불교문화재연구소 신임 소장에 정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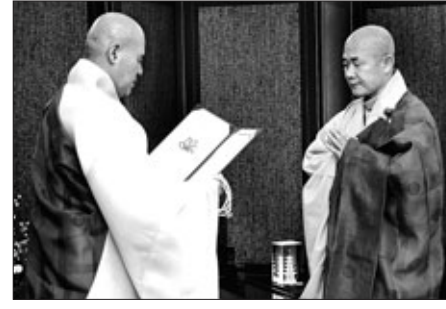
불교문화재연구소 신임 소장에 정안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안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직원들이 신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불교문화재연구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배석한 임석규·이용윤 실장 등 직원들에게 “소

장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안 스님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6년 해인사에서 교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스님은 총무원 호법부장,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사무처장과 대운암 주지



정안 스님(사진 오른쪽)이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있다.

를 역임했으며 현재 가평 아가타보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남북철도 연결로 한반도 미래 내다본다

1월 22일 한반도평화실천기획단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

남북철도연결의 필요성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반도평화실천기획단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남북철도 관련 전문가초청 좌담회’가 1월 22일 템플스테이 3층 보현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성원용 교수(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는 ‘러시아의 철도전략’을, 나희성 박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는 ‘금강산철도(철원-내금강)의 사업성’에 대해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원용 교수는 러시아의 철도전략과 유

라시아 철도의 미래를 설명하며 우리의 나갈 바를 제시했다. 성 교수는 “이제 러시아는 유럽을 겨냥하던 서부지역 자원개발과 운송수단으로서의 철도 개발에서 벗어나 중국 등을 겨냥한 극동지역으로 그 눈길을 돌리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도 노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는 북한이라는 섬을 뚫고 어떻게 남북 철도 운영을 계획하고 유라시아 시대에 편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철도, 대륙을 품다’로 주제 발표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성 박사는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은 남북경제통합의 상징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북한철도 개보수, 북한철도 현대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서대문구 자비의 쌀 전달식



현성 스님이 서대문구 어르신들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도선사 조실)은 1월 20일 설을 앞두고 흥은2동 주민센터 등에서 자비의쌀 20kg 100포대를 서대문구 13개동 불우어르신 각 5명씩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현성 스님은 1월 31일 설 당일 안양교도소를 찾아 전 재소자 2500명에게 설 떡국 공양을 한다. 노덕현 기자

故 유한숙 어르신 49재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밀양송전탑 희생자 故 유한숙 어르신을 추모하며 49재를 봉행했다. 49재는 조계사 이세용 총무실장의 사회로 아래와 같이 추모영상 상영과 함께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추모사(미등스님 환경위원회 위원), 대책위 공동대표 추모사(김준환 신부)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유족과 밀양 주민, 정의당 김제남 의원,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혜숙 기자



금강대, 지역 공무원 최다 배출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지방 대학생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한 지역인재추천(6·7급) 공무원 채용에 충남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추천제는 2013년도 기준 각 지역대학에서 1,000명 이하 3명, 2,000명 이하 4명, 2,000명 이상 5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점수가 토익 700점·토플 625점·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G-TELP 65점(Level 2)·FLEX 625점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7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최근 4년 동안 매년 연속적인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천태종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전교생 기숙사 생활로 전입교수와 365일 24시간 맞춤형 밀착지도가 가능했던 것이 크다”며 “금강대만의 소수정예 특성화 교육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 자리 매김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2014년 2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